

종합

그리스 지고 나이지리아와 비기면 16강

■ 한국 16강 진출 경우의 수

한국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아르헨티나와 맞대결에서 완패하면서 결국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 여부는 나이지리아와 3차전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국은 지난 17일 밤(이하 한국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맞대결에서 1-4로 대패해 1승1패가 됐다. 2연승을 거둔 아르헨티나(5득점 1실점)에 이어 조 2위에 올라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한국과 첫 판에서 0-2로 패했던 그리스와 이어 열린 경기에서 나이지리아를 2-1로 꺾어 상황이 복잡해졌다.

한국은 오는 23일 새벽 3시30분 대만의 대만 스타디움에서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같은 시각 플로르네 피터 모카바 스타디움에서는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맞붙는다.

한국은 나이지리아를 꺾으면 2승1패가 돼 16강 진출이

그리스가 아르헨 이기면 불투명 나이지리아에 지면 무조건 탈락

유력해진다. 비겨서 1승1무1패가 되더라도 아르헨티나-그리스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에 패하면 아르헨티나-그리스 경기 결과를 볼 것도 없이 무조건 16강 진출이 좌절된다.

한국은 현재 3득점 4실점으로 골 득실차가 -1이다. 한국과 1승1패로 승점이 같은 그리스가 2득점 3실점으로 골 득실차는 역시 -1이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조 3위다.

2연패를 당해 최하위로 떨어진 나이지리아는 1득점 3실점으로 골 득실차가 -2다.

한국이 만약 나이지리아에 지면 두 팀 모두 1승2패가 되지만 골 득실차에서 역전이 돼 나이지리아가 앞선다. 나이지리아에 0-1로만 졌어도 골 득실차는 한국이 -2, 나이지리아가 -1이 된다.

| 순위 | 팀 | 승 | 무 | 패 | 득점 | 실점 | 골득실차 | 비고 |
|----|-------------|------------|------------|----------|----|----|------|------|
| 1 | 아르헨티나 > 그리스 | 2승1무1패(4점) | 1승1무1패(4점) | 1승2패(3점) | 5 | 4 | +1 | 조 2위 |
| 2 | 아르헨티나 = 그리스 | 2승1무1패(4점) | 1승1무1패(4점) | 1승2패(3점) | 5 | 4 | +1 | 조 2위 |
| 3 | 아르헨티나 < 그리스 | 2승1무1패(4점) | 1승1무1패(4점) | 1승2패(3점) | 5 | 4 | +1 | 조 2위 |

2패를 안은 나이지리아가 16강 진출 희망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다.

만일 한국이 나이지리아에 지고 아르헨티나가 그리스를 꺾는다면 B조 2위 자리는 나이지리아 차지가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 역시 마지막 한 판에 총력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시설

나이지리아 넘고 '원정 16강 꿈' 이루자

태극 전사들이 아르헨티나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의 허정무호(號)는 17일 열린 남아공 월드컵축구 대회 조별예선 2번째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후보 아르헨티나에 4대1로 완패,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은 오는 23일 나이지리아전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對) 아르헨티나전은 기량도 뒤졌지만 행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른 시간인 전날 17분에 허용한 첫 골은 자책골이었고, 1대 2로 따라붙은 뒤 우리의 추

진만 행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른 시간인 전날 17분에 허용한 첫 골은 자책골이었고, 1대 2로 따라붙은 뒤 우리의 추

진만 행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른 시간인 전날 17분에 허용한 첫 골은 자책골이었고, 1대 2로 따라붙은 뒤 우리의 추

진만 행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른 시간인 전날 17분에 허용한 첫 골은 자책골이었고, 1대 2로 따라붙은 뒤 우리의 추

진만 행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른 시간인 전날 17분에 허용한 첫 골은 자책골이었고, 1대 2로 따라붙은 뒤 우리의 추

진만 행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른 시간인 전날 17분에 허용한 첫 골은 자책골이었고, 1대 2로 따라붙은 뒤 우리의 추

진만 행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른 시간인 전날 17분에 허용한 첫 골은 자책골이었고, 1대 2로 따라붙은 뒤 우리의 추

진만 행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른 시간인 전날 17분에 허용한 첫 골은 자책골이었고, 1대 2로 따라붙은 뒤 우리의 추

진만 행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른 시간인 전날 17분에 허용한 첫 골은 자책골이었고, 1대 2로 따라붙은 뒤 우리의 추

진만 행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른 시간인 전날 17분에 허용한 첫 골은 자책골이었고, 1대 2로 따라붙은 뒤 우리의 추

시정의 변화도 좋지만 '무조건'은 안 된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연일 민선 5기 시장 운용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강 당선자는 먼저, 매주 금요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서 지난 11일 첫 대화를 열었다. 그는 또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 건설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내걸고 그에 걸맞게 분청과 공기업 등에 대한 조직 개편과 통·폐합 등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강 당선자는 그동안 광주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투기장 건립, 관광개발, 도시철도 2호선 지상교 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기업 사장과 정무직 인사들이 박관태 시장과 진퇴를 함께해야 한다고 언급해 취임 후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정 방침은 강 당선

자의 변화와 창조라는 의지도 불구하고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방대한 광주시의 조직을 개편하고 통·폐합하는 문제는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중점사업 역시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광주시가 야구장 건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황인데도 강 당선자가 투기경기장 축구를 개방형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발표해 물의를 빚었다.

공기업 사장과 정무직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 물갈이는 상당한 진통을 수반하게 돼 있다. 공기업 사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정무직도 계약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의 분위기는 대단히 어수선하다고 한다. 취임 정인 데도 각종 시책들이 여과없이 쏟아지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정 속의 변화를 당부하는 이유다.

서갑원 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200만원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 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갑해 정산 컨트리로로부터 5000만원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골프장 전산자료와 지출결의서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으로부 터 1인당 후원금 한도액

을 초과하는 10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러 "다만 서 의원의 박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연 사장으로부 터 처명으로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한 전 총리 동생 등 3~4명 출석 통보

檢 내주초 참고인 신분 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한 전 총리의 동생과 최규하 등 자금 관리·사용에 관여한 관계자들에게 다음주 초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4월21일 잠정 유보했던 한 전 총리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두 달 만에 본격 재개될 전

망이다.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대상자는 한 전 총리의 동생, 정치자금 관리에 관여한 최규하 김모(여)씨, 한 전 총리의 지주당 사무실 관계자 1~2명 등 3~4명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현금과 달러, 수표 등의 형태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건넨 과정과 자금의 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4대강 찬반 논란 속 보 수문설치 본격화

국토부 16개보 67개 수문 공사

영산강 죽산보 내년 6월 완공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16개 보(戽)의 수문(水門)을 설치하는 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문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는 곳은 한강의 이포보(3공구)와 금강의 금남보(행복1지구)·금강보(7공구), 낙동강의 칠곡보(24공구)·구미보(30공구)·낙단보(32공구) 등 6개 보의 19개 수문 가운데 12개이다.

전체 보 공정률은 36%로 예초 계획(32%)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는 수심을 유지하거나 각종 용수를 취수하기 위해 하천을 가로지르는 수리시설로, 4대강에 들어서는 16개 보는 일정하게 수위를 유지해주는 고정보와 수문이 설치돼 수위 조절이 가능한 가동보로 구성된다.

또 다기능 보로 수력발전이 가능한 소수력

발전소와 물고기 등 수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33개 어도(魚道)를 갖춘다.

국토부는 현재 공사 중인 수문은 가물막이가 설치된 가동보 구간으로, 임시물막이는 홍수기에 대비해 이달 말 철거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문을 가물막이를 없애기 전에 만들지 않으면 홍수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물을 막아야 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16개 보에는 모두 67개의 수문이 들어서며 내년 6월 영산강 죽산보를 마지막으로 완공된다.

4대강 16개 보에는 모두 소수력 발전소가 함께 건설된다.

수력발전용량(5만756kW)은 소양강댐(20만kW)의 25%가량으로 연간 5만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억7000만kWh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수면적은 예초 계획된 2억㎡에서 8천만㎡(40%) 늘어난 2억8천만㎡로 넓어지고 저수용량은 8억㎡ 증가한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내달 14일 5대

광주 등 5곳 순회 토론회

한나라당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7월14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준비위 관계자는 18일 "17일 전대 준비위에서 7월14일 전대를 열

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2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비상대책위가 전대 개최안을 최종 확정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다음달 5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열흘간 선거운동이 본격화된다.

전대에 앞서 광주와 부산, 대전, 대구, 강원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후보자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 최장 301.2m 굴비굽기 기네스 기록

영광 '법성포 단오제 축제' 행사로 18일 열린 '세계에서 가장 긴 생선 굽기 기네스 기록 대회'. 법성포 400여 굴비업체 대표 등이 특수 제작한 석쇠구판 위에 길이 301.2m의 영광굴비 1815마리를 굽는데 성공했다. 지금까지 이 부문 기네스는 일본이 갖고 있는 청어 굽기(130m) 기록이었다.

/서부취재본부 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한국, 인도산 위성발사체 사용 합의”

인도 외무부 발표

한국이 향후 위성 발사체 인도산 위성발사체를 사용키로 합의했다고 일간 '더 힌두' 등 인도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한중인 S.M. 크리시나 인도 외무장관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향후 위성 발사시 인도산 발사체를 사용해 달라는 제언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인도 외무부는 관련 성명에서 "크리시나 장관은 지난 1월 체결된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간 협력 양해각서를 언급하면서 한국 위성 발사에 인도 발사

체 사용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 제안을 수용해 당국자에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우주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우주개발 분야의 선진국 중 하나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발사체 1개에 무려 10개의 위성을 장착해 발사하는데 성공했고,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달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달의 물 흔적 발견에도 기여했다.

따라서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가 잇따라 실패한 가운데, 양국간 발사체 분야 협력이 개발 분야로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빛의 만평

- 김중두



차라리 이걸로 한판 하라 하지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 논설주간 申滄榮 | 편집국장 曹慶完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 | | |
|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사회 2부 2200-692 <F A X 222-8005> |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18> |
| 편집부 2200-672 |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7-9600> | 광고매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
| 정치부 2200-634 | 연예문화부 2200-679 <F A X 227-9500> |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 |
| 경제부 2200-641 | 체육팀 2200-663 | | |
| 사회1부 2200-612 | 사건부 2200-691 | | |
| <F A X 222-4267> | 조사부 2200-571 |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